

# 최근 OECD 가입국과의 경쟁력 비교

조홍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산업조직 · 국제경제정책  
김연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해외투자 · 국제금융

1996년도 및 1995년도 「IMD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최근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 체코, 헝가리 등 3개국과 한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국내 경제 부문에서는 월등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화, 정부 부문, 그리고 금융 부문에서는 뒤지고 있다. 경쟁력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국 기업인들이 작성하는 설문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금융 부문의 규제 철폐,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화 등 기준에 진행되어온 개혁 과정의 추진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 머리말

### 최

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난해

24위에서 3단계 떨어진 27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 부문의 경쟁력이 24위에서 33위로 하락하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 8개 부문, 225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경쟁력 분석에 의하면, 정부 부문외에도 국제화, 금융,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 우리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연내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OECD 회원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영향력있는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OECD<sup>1)</sup>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의 각종 문제 해결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된 IMD 평가에 의하면, 우리의 경쟁력 순위는 대략적으로 현재의 OECD 회원국의 숫자와 일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경쟁력 위상은 OECD 가입 합격선 부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OECD에 가입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경쟁력 수준은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1996년도와 1995년도의 IMD 경쟁력 평가에 근거하여<sup>2)</sup> 최근에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멕시코, 체코공화국, 헝가리와 우리와의 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1) 폴란드가 가입 심사를 통과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곧 28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 1996년도 IMD 경쟁력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부 항목에 대한 비교는 1995년도 경쟁력 보고서를 원용함. 1995년 보고서도 1996년과 동일한 8개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대상 국가는 1995년 48개국, 1996년 46개국으로 차이가 있으며, 소항목도 1995년 278개에서 1996년 225개로 축소되었음.

## 경쟁력 전반 비교

작년과 금년의 IMD 경쟁력 비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우리 경쟁력의 상대적인 하락이다. 우리를 포함한 4 개국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국제화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다른 3 개국을 앞서고 있으나, 1996년도에는 국제화, 금융, 사회간접자본의 3 개 부문에서 4 개국 가운데 선두 자리를 내주고 있다. 특히, 국제화 부문에서는 3 국 모두에게 뒤지고 있어 국제화의 추진이 제도적인 개혁은 물론, 국민 생활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1996년도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는 있으나, 순위 면에서 우리가 24위에서 33위로 하락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정부 부문의 경쟁력 상승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다른 선진국은 물론, 헝가리, 체코 등도 과거 사회주의의 잔재인 정부 규제를 과감히 떨치고 각종 사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국내 경제 부문인데, 이는 그 구성 항목들에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에서 파생되는 통계

수치가 많기 때문이다. 즉, 경제 규모, 경제 성장, 물가 상승, 교역량 등 주요 거시 경제 지표들이 구성 항목으로 등장하고 있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사회주의체제에서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에서는 우리가 처지고 있는 반면 체코가 약진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는 우리를 제외한 3 개국 모두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헝가리는 최근 경제 개발의 기초 작업으로 고속도로, 발전소의 신규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우월하게 작용하였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하여 우리의 상황

〈표 1〉 부문별 경쟁력 순위

항목	연도	한국	체코	헝가리	멕시코
국내 경제	1995	6	37	46	45
	1996	4	34	43	41
국제화	1995	34	25	44	35
	1996	43	34	30	40
정부	1995	24	37	45	39
	1996	33	34	40	38
금융	1995	34	42	45	46
	1996	40	33	43	42
사회 간접 자본	1995	30	41	39	33
	1996	34	35	24	31
기업 경영	1995	25	45	46	41
	1996	28	39	38	35
과학 기술	1995	15	34	46	45
	1996	25	43	36	46
인력	1995	21	31	37	39
	1996	21	28	33	39

이 멕시코보다 나쁜 것으로 평가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도로 연장, 화물 처리량 등 통계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낙후되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빠른 경제 성장 속도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국내 경제 부문

우리가 가장 우월하게 평가받는 부문이 바로 국내 경제 부문이다. 이는 단지 OECD 신규 가입국뿐만 아니라 40 개국이 넘는 경쟁력 평가 대상 전체 가운데에서도 그러하다. 1996년도에는 국내 경제 부문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차지하여 작년의 6위에서 2단계 상승하였다. 국내 경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 부문이 IMD 평가의 8 개 부문 가운데에서 이른바 Hard Data<sup>3)</sup>의 비중이 가장 많은 부문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부문은 한 국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 규모와 산업 생산력을 보여주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부문을 구성하는 소항목들은 GDP, 1인당 GDP, 성장률, 교역량, 물가 상승 등 주요 거시 경제 지

표들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 년 동안 지표 상으로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많이 있어 기간 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1995년도 경제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와 OECD 회원국간 비교를 하면 단순 경제력 기준으로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상당히 우수한 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는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체코, 헝가리, 멕시코 등 6 개 회원국을 앞서고 있으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9.0%이므로 27 개 회원국 가운데 선두 그룹인 터키(7.0%)와 아일랜드(6.8%)를 제치고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남유럽 국가, 체제 전환국, 멕시코, 터키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 중간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은 최저 수준인 체코(2.9%), 아이슬란드(4.9%), 일본(3.2%)보다도 훨씬 낮은 2.0%를 기록하여 고용 안정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산업 생산력 면에서 보면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메모리 반도체 등 주요 기간 산업이 세계 2위에서 7, 8위권에 해당되어 OECD 국

3) 補論 참조.

가들 가운데에서 최고 수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경제 부문의 평가 항목 가운데 우리는 도시 생활비 수준과 경제적 위험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다.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시 생활비는 29위를 기록하여 (높은 순위가 낮은 생활비를 의미) 최근 가입한 세 국가 모두에게 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47위), 싱가포르(35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도시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적 위험도 측면에서 체코(8위)보다 뒤진(18위)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위험도는 일본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일시적 긴장이 경제적 위험의 증가로 해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국제화 부문

OECD 가입을 위한 준비가 가장 덜 된 분야는 아마도 국제화 부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IMD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가 OECD의 기존 회원국이나 또는 최근 가입한 3 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뒤진 부문이 바로 국제화 부문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문과 함께 지난해에 비해 무려 9단계(34위 → 43위)

나 순위가 밀렸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OECD에 가입한 3 개국에 비하여 모두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D 경쟁력 평가에서 국제화 부문이란 단적으로 한 국가가 국제 무역과 국제 투자의 흐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무역과 투자에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국제화라는 단어에서 오는 주관적인 인상과는 달리 이 부문을 구성하는 소항목 가운데에는 한 국가의 교역량과 증가 추세, 해외 투자의 절대량과 증가 추세 등을 나타내는 Hard Data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은 定性 분석 부분에서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를 본다면, 한국은 '국민 문화' 항목<sup>4)</sup>(48위, 최하위)과 같이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은 차치하고라도, 다분히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문항에서도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투자자의 한국 기업 인수 가능성'(45위), '외국인이 경제 활동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지의 여부'(45위),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관련 이민법상의 제약'(46위) 등이 그것으로 이런 항목에서는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신규 가

4) 한 국가의 문화가 외국 문화에 대해 개방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함.

입 3 개국에 비해서도 매우 뒤지고 있다. 심지어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결정되는 '관광 수입' (38위) 면에서도 체코(7위), 헝가리(12위), 멕시코(28위) 모두에게 뒤지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몇개의 항목은 극히 주관적인 판단, 그것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내국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한 국가의 경쟁력과 얼마나 관련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지적되는 대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차원에서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외국 기업인 또는 외국과 거래가 많은 내국 기업인에게는 '體感 障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 투자의 유치 기회, 외국인의 국내 경제 활동의 제약, 그리고 해외 인력의 고용 기회라는 측면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자세와 개혁 의지가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 정부 부문

1996년도 한국의 경쟁력 평가가 하락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문이 정부 부문이다. 국제화 부문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하여 9단계(24위 → 33위) 하락하였다. 정부 부문 전체로는 OECD 신규 가입 3 개국들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체코(34위)가 바로 뒤를 쫓고 있다. 정부의 가격 통제, 공공 부문 조

달 방식의 폐쇄성, 정부의 시장 지배, 가격 통제 관행, 정치시스템의 낙후성 등의 문항에서 40위 밖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야는 작년 보고서에서도 40위권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무려 4,500 개의 규제 완화과제를 선정하여 그 가운데 3,600 개를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경주해왔다.<sup>5)</sup> 또 지난 수년간 정부 규제와 시장 개입에 관한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 완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9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도 자유화, 자율화의 추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sup>6)</sup> 영국은 '市場性테스트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당연히 정부의 몫으로 인식되었던 업무를 과연 계속 정부 산하에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쓰레기 처리, 법무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전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996년도 경쟁력 평가의 정부 부문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이른바 체제 전환국들의 약진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규제의 철폐, 과감한 민영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5) 「조선일보」, 1996. 5.26.

6) 5)와 동일.

권한 이행 등 기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실행하기 어려운 개혁 작업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정부 부문 경쟁력 평가에서 중국은 작년 21위에서 무려 12단계나 상승하여 9위를 기록하였고, 체코와 헝가리의 순위도 각각 3단계와 5단계 상승하였다.<sup>7)</sup>

### 금융 부문

금융 부문은 체코(33위)에도 뒤진 4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년 34위에서도 많이 후퇴한 것으로 국제화, 정부 부문과 함께 우리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3 개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규제와 자본 시장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금융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된다.<sup>8)</sup> 지난해의 평가를 근거로 우리의 취약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외국 자본이 국내 자본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1995년도 48위, 최하위)을 들 수 있다.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기존의 자본 시장 개방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기관과 자본 시장의 낙후성이 문제이다. 여기서는

최근 OECD 가입국 모두 높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작년의 경우 우리는 45위인 반면, 사회주의체제에서 전환한 체코가 40위, 금융 위기를 겪은 멕시코가 42위로 우리를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다. 또한 금융 기관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헝가리(37위)에 뒤진 45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금융제도와 관행이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매우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起債 문제이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조달된 채권액의 對GDP 비율에서 한국은 27위, 헝가리는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금융 기관의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접근 가능성에 관한 문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한국은 최하위급인 44위이고, 헝가리는 38위). 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起債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제한된 반면, 헝가리와 같은 국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기타 부문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우리가 작년에 비하여 4단계가 하락하였으나, 최근 OECD 가입 3개국 모두 약진하였고 특히, 헝가리는 무려 15단계를 상승하여 멕시코와 함께 우리를 앞

7) 폴란드는 43위로 순위 변화 없음.

8) 『한국경제신문』, 1996. 5.25.

서고 있다. 작년 평가시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에너지의 산업 생산에의 사용 비중, 대체 에너지源의 개발, 에너지源의 수입 의존도, 통신 비용 등의 측면에서 뒤지고 있다.

기업 경영,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순위가 20위권에 들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문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엔지니어의 비율이 헝가리에 뒤지고, 국방 관련 분야를 제외한 R&D에서 정부의 투자가 저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특허 발행이 다른 OECD 신규 가입국에 비하여 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 자원 부문에서도 전체 순위는 양호한 편이나 몇가지 소항목에서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 인력의 활용도, 정부의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소득 분배 등의 측면에서는 체제 전환국인 헝가리와 체코에 비하여 뒤지고 있다.

### 맺음말

OECD 가입을 눈 앞에 둔 우리의 경쟁력은 과연 선진국 수준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치 않다. 앞서 보았듯이, 국내 경제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 반해 다른 부문은

최근 OECD에 가입한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심지어는 뒤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년간 우리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가恣意的일 뿐 아니라 이를 측정하는 방법<sup>9)</sup>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定量 분석이나 거시 경제 지표의 분석에 치우치지 않은 IMD의 평가 방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MD 보고서」에서는 경쟁력이란 ‘富의 창출과 사회적 응집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능력’<sup>10)</sup>으로 정의하여 경쟁력을 단순한 생산의 효율성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에게 대한 평가에서 드러나는 국제화, 정부, 금융 부문의 비효율성과 낙후성도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경쟁력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의 단계에 도달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국내외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개방을 이루어야 한

9) 자세한 방법은 補論 참조.

10)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p. 6.

다. 아울러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이루어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의 발전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IMD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황금률 10 가지를 제시하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체계', '유연한 경제 구조', '행정의 질과 속도' 등을 비결로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우리의 경우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유화·자유화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과 인력 자원 등 유무형의 생산 요소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 〈補論〉「IMD 경쟁력 보고서」의 작성법

「IMD 경쟁력 보고서」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8 개 부문으로 평가한다. 각 부문은 25~35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전체 보고서는 1996년의 경우 총 225 개의 소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소항목들은 그 성격에 따라 Hard Data와 Soft Data(또는 Survey Data)로 분류되어 전체 경쟁력 평가가 定量 분석과 定性 분석의 조합이 되도록 되어 있다.

Hard Data는 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에 해당되는 통계 수치들을 사용하여 IMD측에서 직접 국가간 순위를 설정한다. Soft Data는 수치로 측정 또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순위를 매겨서 데이터화한 것이다. 이 조사는 사전에 선정된 각국의 최고 중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IMD는 각 평가 대상국에 있는 자매 기관(PartnerInstitue: 한국의 경우 KDI)을 통하여 전세계 총 2만 명의 경영인들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설문 조사의 응답률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소항목은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0점'에서 '10점'의 범위에서 평가된다. 이렇게 모아진 설문 조사의 결과는 소항목간의 동일한 표준편차를 갖도록 표준화(normalization) 과정을 거친다.

현재 Hard Data와 Soft Data를 구성하는 소항목은 개수 기준으로는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IMD측이 경쟁력 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Hard Data와 Soft Data에 부과하는 비중(weight)에 차이를 두고 있어, 전체 경쟁력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2/3와 1/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1)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p. 11.